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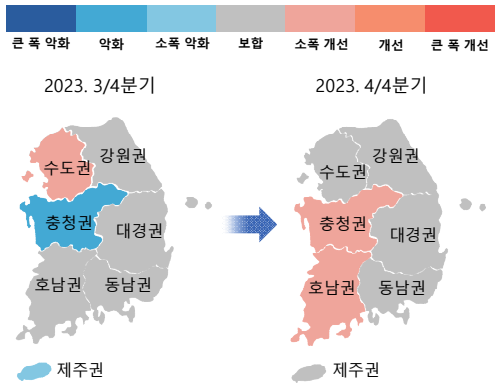
지역경제 동향은 2023년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한국은행 15개 지역본부가 실시한 업체 모니터링 결과 및 입수가능한 통계 등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향후 발표되는 공식통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경기 개황

2023년 4/4분기 중 지역경제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와 디스플레이의 성장세가 이어졌으나 반도체, 조선, 기계장비 등이 전분기 수준에 머물면서 보합 수준을 보였다. 서비스업은 운수, 숙박·음식점 등의 성장과 도소매, 부동산 등의 위축이 엇갈리면서 보합세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충청권, 호남권이 소폭 개선되었으나 나머지 권역은 보합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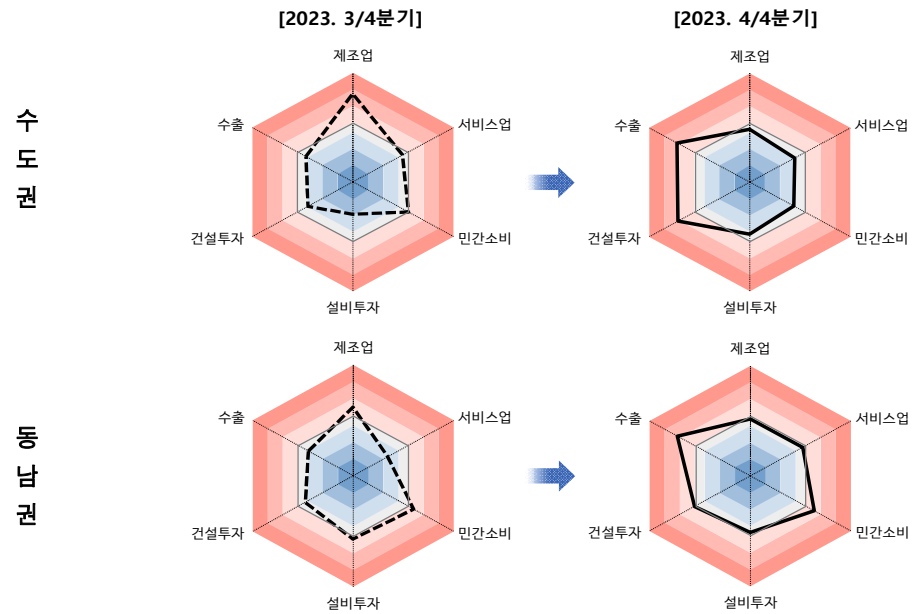
향후 지역경제는 4/4분기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철강 등의 둔화와 석유 정제 및 화학의 부진으로 보합세를 보이겠으며, 서비스업도 운수를 제외한 도소매, 숙박·음식점, 부동산 등이 회복되지 못하면서 보합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권역별 경기[1)]



주: 1) 권역별로 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모니터링하여 입수한 생산, 수요 및 고용 동향 등을 토대로 종합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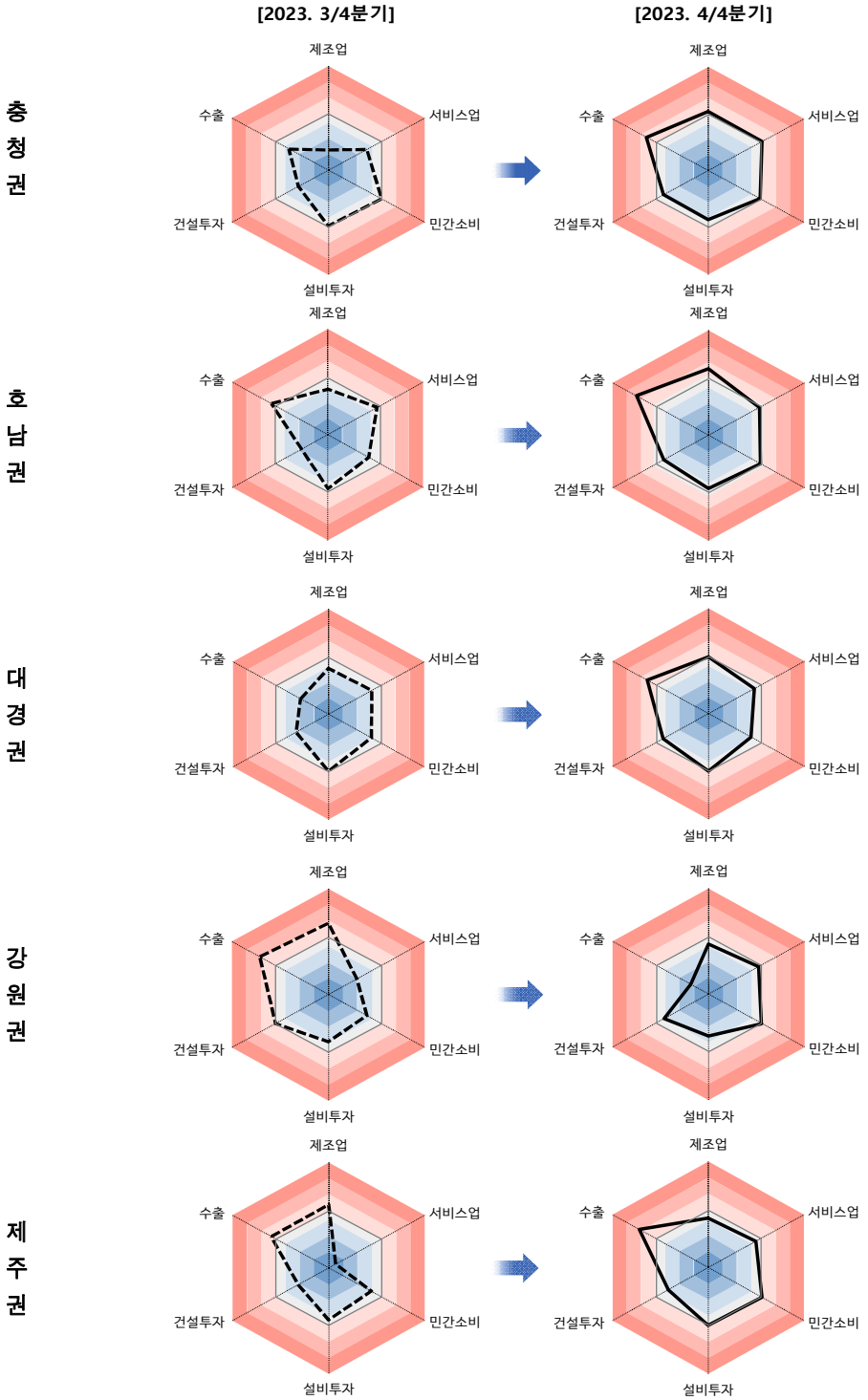
권역별 경기 레이더 추이[1)]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

큰 폭 감소 | 감 소 | 소폭 감소 | 보 합 | 소폭 증가 | 증 가 | 큰 폭 증가

권역별 경기 레이더 추이[1)]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

큰 폭 감소 | 감 소 | 소폭 감소 | 보 합 | 소폭 증가 | 증 가 | 큰 폭 증가

2. 생 산

제조업 생산 보합

4/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세계경제 성장세가 완만한 가운데 중국경제 회복 약화, 국내 투자수요 정체 등으로 3/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산업별로는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이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반도체 생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조선, 기계장비 등은 보합에 머물렀다. 권역별로는 충청권과 호남권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나머지 권역들은 보합세를 유지하였다.

권역별 제조업 생산[1)]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	◇	▲	▲	◇	◇	◇

주: 1) 전분기대비 방향성 및 변화 정도를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보합, 감소를 나타냄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IT경기 개선에 힘입어 반도체가 반등하고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이 소폭 성장하겠으나 자동차, 철강·금속 등의 둔화와 석유정제 및 화학의 부진 지속으로 보합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등이 소폭 증가하는 반면 동남권, 호남권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서비스업 생산 보합

4/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여객 및 화물 운송수요 증가, 일부 지역 대규모 행사 개최 등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고물가, 주택시장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수준을 지속하였다. 산업별로는 운수와 숙박·음식점이 개선된 반면 도소매, 금융·보험, 부동산 등은 수요 부진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권역별로는 충청권이 소폭 증가하였지만 수도권은 소폭 감소하였고 나머지 권역은 보합세를 보였다.

권역별 서비스업 생산[1)]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	◇	▲	◇	◇	◇	◇

주: 1) 전분기대비 방향성 및 변화 정도를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보합, 감소를 나타냄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세계 상품교역 및 국내외 여행 회복으로 운수의 증가세가 이어지겠으나 소비심리 정체로 도소매, 숙박·음식점, 부동산 등은 부진할 것으로 보여 4/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과 호남권이 소폭 증가하는 반면 동남권, 충청권, 강원권은 소폭 감소, 대경권, 제주권은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4/4분기 중 권역별 제조업 · 서비스업 생산 동향[1)]

	제조업	서비스업
수도권	· 자 동 차(▲) : 국산 친환경차 선호로 수출 증가 · 디스플레이(▲) : 스마트폰 신제품 OLED 패널 공급, 자동차 OLED 시장 본격화 · 반 도 체(▼) : 메모리 반도체 감산 등 · 의 약 품(▼) : 합병에 대비한 생산 물량 조정	· 운 수(▲) : 해운 화물, 항공 화물 및 여객 모두 개선 · 도 소 매(▼) : 온화한 기온으로 이너웨어 등 판매 저조 · 금융 · 보험(▼) : 주식 및 채권 시장 거래대금 감소 · 부 동 산(▼) : 주택매매거래량 감소 · 숙박음식점(◇) : 높은 외식물가에 따른 외식수요 감소
동남권	· 자 동 차(▲) : 북미지역 중심 수출 증가 · 석 유 화 학(▼) : 중국 생산설비 증설, 일부 업체 정기보수 · 조 선(◇) : 수주물량 건조 지속 · 철 강(◇) : 자동차 생산 증가, 건설경기 위축 · 석 유 정 제(◇) : 중국의 석유제품 수요 개선, 미국 등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	· 숙박음식점(▲) : 외국인 관광객 증가, 대규모 지역축제 개최 · 운 수(▲) : 부산항 컨테이너 처리량 증가 · 도 소 매(▲) : 재화 소비 증가 · 부 동 산(▼) : 주택시장 부진
충청권	· 반 도 체(▲) : 재고조정 효과 가시화, 전방산업 업황 개선 · 디스플레이(▲) :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회복, 신제품 출시 · 자 동 차(▲) : 신차 수출 증가 · 철 강(▲) : 중국의 감산으로 공급과잉 다소 해소 · 석 유 화 학(▲) : 에틸렌-나프타 스프레드 확대, 중국 경기 부양 · 전 기 장 비(▼) : 유럽지역 보조금 축소 등으로 전기차 둔화	· 운 수(▲) : 여행객수 증가, 해운 물동량 회복 · 부 동 산(▲) : 주택매매거래량 증가 · 숙박음식점(▲) : 대규모 지역행사 개최, 숙박시설 이용객 증가 · 도 소 매(▼) : 고물가 및 고금리로 구매력 약화
호남권	· 석 유 화 학(▲) : 수출 회복에 따른 가동률 상승 · 조 선(▲) : 양호한 수주량, 인력 수급 상황 개선 · 전 자 부 품(▼) : 신규 스마트폰 출시 효과 감소 · 석 유 정 제(◇) : 정제마진 축소, 대중국 수출 감소 · 자 동 차(◇) : SUV 판매 호조, 일부 업체 공장 가동 중단 · 철 강(◇) : 자동차와 조선의 양호한 업황, 건설, 기계 등 수요 부진	· 운 수(▲) : 항공운송 물동량 및 항공 운항편수 증가 · 도 소 매(▼) : 소비심리 회복 지연 · 부 동 산(▼) :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 숙박음식점(▼) : 주류가격 인상 등으로 가격부담 증가
대경권	· 디스플레이(▲) : 차량용 디스플레이 공급 확대 · 휴 대 폰(▲) : 해외사업장 생산물량 증가 · 철 강(▼) : 전방산업 생산 증가세 둔화 · 기 계 장 비(◇) : 전방산업 해외 투자 증가, 내수 위축 · 자동차부품(◇) : 완성차 판매 증가세 지속, 내연기관용 부품 수요 둔화 · 섬 유(◇) : 주요국 수출 감소, 그 외 지역 수출 증가	· 부 동 산(▲) : 주택거래량 증가 · 도 소 매(▼) : 음식료품, 의복 등 수요 부진 · 운 수(◇) : 항공 운송 증가세 지속, 육상 운송 감소 · 숙박음식점(◇) : 외국인 관광객 증가, 행사 수요 확대, 내국인 관광객 감소
강원권	· 전 선(▲) : 해상풍력 발전용 해저케이블 수요 지속 · 의 약 품(▲) : 국내 호흡기 감염병 확산, 보툴리눔톡신 중국 수출 호조 · 자동차부품(▼) : 고금리 지속 등으로 완성차 내수 둔화 · 시 멘 트(◇) : 국내 건설경기 둔화, 기착공된 공사 진행	· 도 소 매(▲) : 승용차 신규등록대수 증가 · 부 동 산(▲) : 주택 매매거래 증가 · 숙박음식점(▼) : 일본 등 근거리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지역 방문객 감소 · 운 수(◇) : 항공 여객수 증가, 철도 및 버스 이용객수 감소
제주권	· 반 도 체(▲) : 홍콩 등으로부터 5G 통신 기기 수요 확대 · 식 음 료(▼) : 내국인 개별 관광객수 감소	· 숙박음식점(▲) : 내국인 단체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증가 · 도 소 매(▲) : 온라인 판매 확대, 대규모 할인 행사 · 부 동 산(▼) : 주택매매가격 약보합세 지속 · 운 수(▼) : 국내선 운항편수와 이용객수 감소

주: 1) ( )내는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감소, 보합을 나타냄

3. 수 요

민간소비 보합

4/4분기 중 민간소비는 재화 소비와 서비스 소비가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전분기 수준에 머물렀다. 권역별로는 동남권, 강원권 및 제주권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수도권과 대경권이 소폭 감소하였다. 한편 충청권 및 호남권은 보합 수준을 나타내었다.

권역별 소비[1)]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	▲	◇	◇	▼	▲	▲

주: 1) 전분기대비 방향성 및 변화 정도를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보합, 감소를 나타냄

향후 민간소비는 양호한 고용사정, 가계소득 증가에 힘입어 점차 회복하겠으나, 고금리 영향 지속 등으로 회복세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권역별로는 호남권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충청권 및 강원권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타 권역은 보합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비투자 보합

4/4분기 중 설비투자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에서 계획된 투자를 지속하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권역별로는 강원권이 소폭 감소하였으며, 여타 권역은 보합 수준을 나타내었다.

권역별 설비투자[1)]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	◇	◇	◇	◇	▼	◇

주: 1) 전분기대비 방향성 및 변화 정도를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보합, 감소를 나타냄

향후 설비투자는 IT경기가 회복되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전기차 및 이차전지 등 친환경·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개선되면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권역별로는 호남권 및 제주권이 보합 수준을 나타내며, 여타 권역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설투자 소폭 증가

4/4분기 중 건설투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SOC 예산집행 축소 등으로 공공부문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민간부문이 증가하여 소폭 증가하였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증가하였으며 동남권이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제주권은 소폭 감소하였고, 여타 권역은 보합 수준을 나타내었다.

권역별 건설투자[1)]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	▲	◇	◇	◇	◇	▼

주: 1) 전분기대비 방향성 및 변화 정도를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보합, 감소를 나타냄

향후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의 신규 수주 및 착공 위축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SOC 예산 증가 등이 감소폭을 제한하여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호남권 및 대경권이 보합 수준을 나타내며 여타 권역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출 증가

4/4분기 중 수출은 반도체 수출이 반도체 가격 상승 전환과 수출물량 확대로 증가한 가운데 기계류, 자동차, 선박,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도 증가하여 전분기 대비 증가하였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동남권, 호남권 및 제주권이 증가하였으며, 충청권 및 대경권은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강원권은 감소하였다.

권역별 수출[1)]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	▲▲	▲	▲▲	▲	▼▼	▲▲

주: 1) 전년동기대비 방향성 및 변화 정도를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보합, 감소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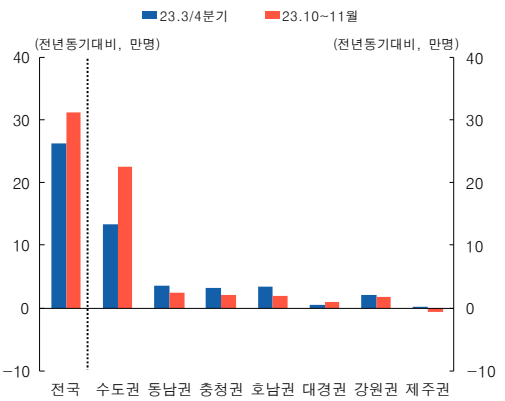
향후 수출은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IT기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권역별로는 강원권이 증가하며 호남권을 제외한 여타 권역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호남권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고 용

취업자수 증가폭 확대

10~11월 중 취업자수(월평균, 전년동기대비)는 31.2만명 증가하였으며, 증가폭은 3/4분기(26.3만명)에 비해 확대되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및 대경권의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및 강원의 증가폭이 축소되었고, 제주권은 감소로 전환하였다.

취업자수 증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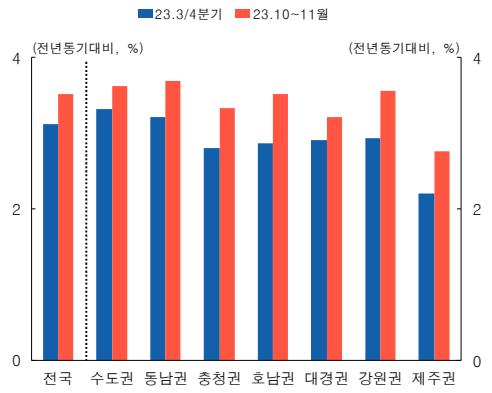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5.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소비자물가 오름폭 확대

10~11월 중 소비자물가(월평균, 전년동기대비)는 기상 악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국제유가 하락폭 축소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으로 모든 권역에서 오름폭이 확대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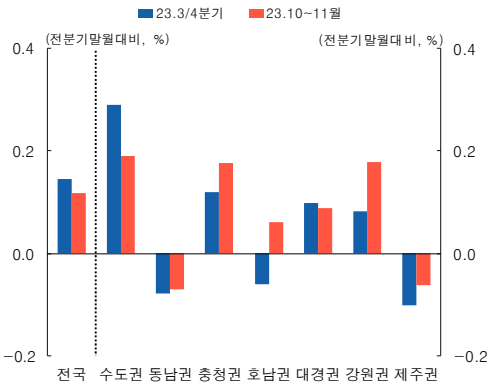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축소

10~11월 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 전분기말월대비)은 수요 증가 정체로 수도권 및 대경권의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나 충청권 및 강원권의 상승폭은 확대되었다. 반면 동남권 및 제주권의 하락폭은 축소되었고 호남권은 상승 전환하였다.

주택매매가격 상승률[1)]



주: 1) 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한국부동산원

참고

빅데이터 모형을 이용한 권역별 업황 추정

최신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텍스트 분석 기법(서범석, BOK이슈노트 2023-5)을 활용하여 권역별로 세분화된 4/4분기 지역경기 업황지수(Text-based Business Confidence Indicator, 이하 텍스트 업황지수)를 산출[1]하였다. 분기별 약 7천여건의 증권사 애널리스트 기업평가 보고서를 분석하여 기업 업황을 17개 권역으로 나누고, 이를 공장 소재지 기준으로 재평가하여 권역별 텍스트 업황을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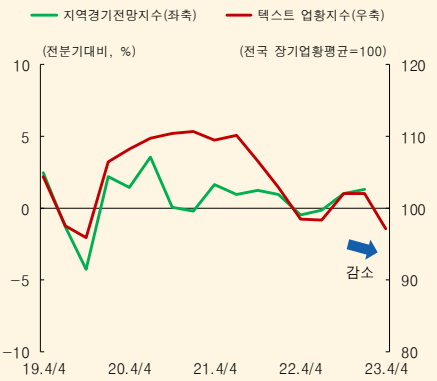
텍스트 업황지수는 전국의 장기업황평균[2]을 100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텍스트 업황지수가 100보다 높을 경우 해당 지역의 업황이 전국 장기평균보다 호조인 상황을, 낮을 경우 부진한 상황을 의미한다.

텍스트 업황지수로 추정한 권역별 업황은 1개 권역이 개선(증가), 6개 권역은 악화(소폭 감소~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제주권 생산은 증가, 호남권·강원권은 소폭 감소, 수도권·동남권·충청권·대경권은 감소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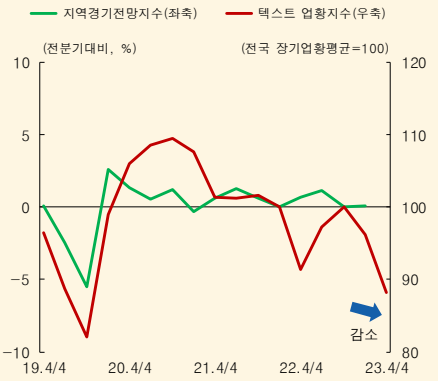
한편 전국 업황의 장기평균 수준과 비교해보면, 강원권의 업황은 전국 장기평균 수준, 나머지 모든 권역은 전국 장기평균 대비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텍스트 업황지수를 통해 추정한 권역별 업황 전망[1)2)]

<수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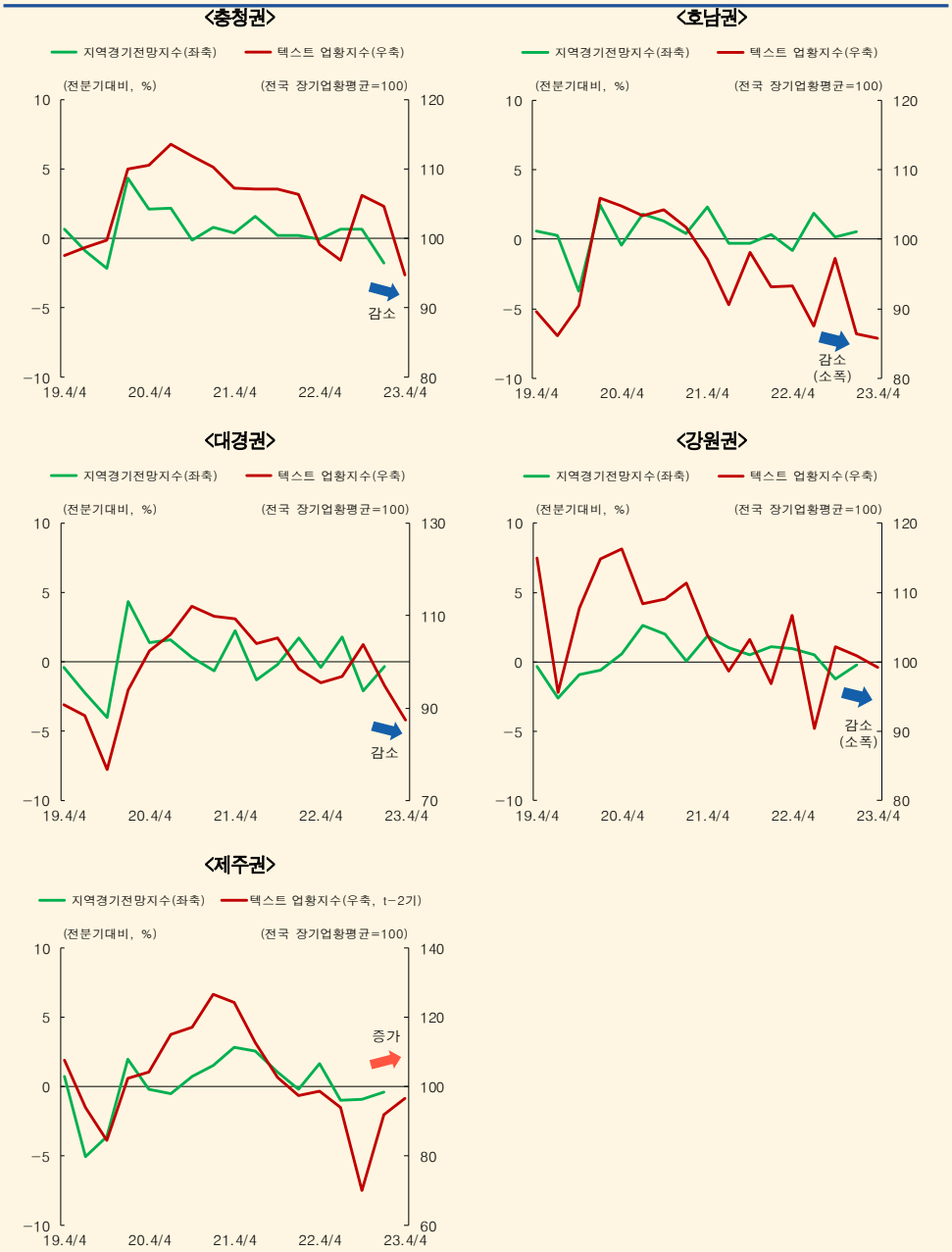


<동남권>



1) 2023년 4/4분기 텍스트 업황지수는 10월 및 11월 일부 기간 중(10.1~11.20일 기준) 작성된 증권사 애널리스트 기업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산출되었다. 자세한 분석 방법은 BOK 이슈노트(제 2023-5호)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산업 모니터링: 증권사 리포트 텍스트 분석'(서범석, 2023)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2) 전국의 장기업황평균은 17개 시도의 2019.1/4분기~2023.4/4분기 중 평균 업황을 의미한다.



주: 1) 지역경기전망지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을 의미
2) 2019.1/4분기-2023.4/4분기 기간중 t기 지역경기전망지수와 텍스트 업황지수를 나타내었음. 단 제주권의 경우 동기간중 t기 지역경기전망지수와 t-2기 텍스트 업황지수를 나타냄

자료: 자체 시산